

大韓醫療氣功學會

醫療氣功
MEDICAL GIGONG
Vol.20. No.1. 2020.12.31.

DOI: <https://doi.org/10.22942/mg.2020.20.1.148>

《黃帝內經》과 《景岳全書》에서 보이는
酒의 양생적 의미에 대한 분석

정대성*, 이재흥*, 배재룡*

* : 대한의료기공학회

ABSTRACT

Analysis of the Curative Meaning of Alcohol in
《Hwangjenaegyeong(黃帝內經)》 and 《Gyeongakjeonseo(景岳全書)》

Dae Sung Jung *, Jae Heung Lee *, Jae Ryong Bae*

* : The Member of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Gi-Gong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only to examine the negative functions of alcohol, but also to examine the positive functions and look at it with a balanced perspective.

· Received : 25 Nov. 2020 · Revised : 11 Dec. 2020 · Accepted : 19 Dec. 2020

Correspondence to : 배재룡(Jae Ryong Bae)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347-19 무의도한방병원

Tel. 031-999-2222 Fax. 031-999-2200 E-mail : zailong@hanmail.net

Methods : We investigated the number of times the word “酒”(alcohol) appears in 《Hwangjenaegyeong》 and 《Gyeongakjeonseo》. The meaning of alcohol was divided into seven categories. The number of positive and negative functions of alcohol was counted and the ratio was calculated.

Results : 1. In the 《Hwangjenaegyeong》, the word alcohol appears 23 times, of which 9 times has positive functions, 10 times has negative functions, and the remaining 4 times does not correspond anywhere. The ratio of positive functions is 39.13% and negative functions 43.48%.

2. In the 《Gyeongakjeonseo》, the word alcohol appears 1,487 times, of which 1,140 times (76.66%) has positive functions, and 327 times (21.99%) has negative functions.

Conclusions : 1. In 《Hwangjenaegyeong》, the number of comments about positive and negative functions of alcohol is similar.

2. 《Gyeongakjeonseo》 has commented a lot about the positive functions of alcohol. However, it has more mentions to negative functions of alcohol except for those related to herbs and prescriptions (48 to 64 chapter).

3. It is somewhat unreasonable to judge the emphasis on the positive and negative function of alcohol according to the number of references to alcohol in oriental medicine classics. But in these books, we can find a balanced approach between the two sides, not a one-sided biased view.

4. From a curative point of view, it is desirable to know and to use the positive and negative functions of alcohol, and drink alcohol as appropriate control.

* **Keywords** : Alcohol(酒), Negative Functions, Positive Functions, 《Hwangjenaegyeong(黃帝內經)》, 《Gyeongakjeonseo(景岳全書)》, *Yangseong*. 술의 순기능과 역기능, 양생

I. 緒論

《黃帝內經》「玉版論要」에서는 “병이 깊은 자는 醪酒로써 치료하는데 100일이면 낫는다.”라고^{주1)} 하였다. 하지만 「上古天真論」에서는 “술을 물같이 많이 마시고, 술에 취해 入房을 하면 精氣와 眞氣가 소모된다.”^{주2)}라고 말하기도 한다[1]. 《本草綱目》에서 “누룩으로 빚은 술은 적게 마시면 血을 調和시키고 氣의 循環을 촉진시키며 壯身禦寒 한다. 절제함이 없이 너무 자주 마셔서 늘 취해 있는 사람은 병에 걸리고 행실이 부정하게 되며 심하면 목숨까지 잃게 된다. 그 해는 얼마든지 예를 들 수가 있다.”라고^{주3)} 하였다. 《養生要集》에서 “술은 사람에게 이로울 수 있지만 또 사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약제대로 적당히 마시면 百脈을 조화시키고 消邪却冷하지만 절제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나치게 마시면 體氣가 허약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진다. 그러므로 신중히 조절하여야 한다.”라고^{주4)} 말하고 있다. [2]

그 외 많은 고전에서 술에 대하여 몸을 치료해 주는 약으로서의 순기능과 몸에 해악을 끼치는 역기능을 이야기한다. 과연 술은 몸에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한국교육정보학술연구원(RISS; <http://www.riss.kr/>)에서 “음주”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바 최근 3년 사이 발표된 학위논문 794건 중 766건(96.5%)은 술의 역기능에 대한 연구였다. 학문에 있어 편향된 시선은 불균형을 낳고 그 불균형은 사람들에게 음주에 대한 나쁜 인식만을 심어줄 뿐이다. 편향된 시선을 균형 잡힌 시선으로 바꿔 주기 위한 시도로서 한의학의 고전들은 술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의학의 대표 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黃帝內經》, 《東醫寶鑑》, 《景岳全書》에서는 술에 대하여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東醫寶鑑》의 경우, 윤의 2012년 연구[3]에서 술의 의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이미 이루어진 바가 있다.

따라서 《黃帝內經》과 《景岳全書》 2개의 고전을 통해 술의 양생적 의미를 순기능과 역기능의 양면성 측면에서 어떠한 기능이 더욱 강조되었는지 알아보고 술에 대해 어떠한 자세와 입장을 취하는 것이 양생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研究方法

주1) “其見大深者，醪酒主治，百日已”

주2) “醉以入房，以欲竭其精，以耗散其眞”

주3) “麴麴之酒，少飲則和血行氣，壯身禦寒。若夫沈緬無度，醉以爲常者，輕則致疾敗行，甚則喪驅隕命，其害可勝言哉。”

주4) “酒者，能益人，亦能損人。節其分劑而飲之，宣和百脈，消邪却冷也。若升量轉久，飲之失度，體氣使弱，精神侵昏。宜慎，無失節度。”

1. 원문 조사

《黃帝內經》과 《景岳全書》의 원문 및 검색은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https://ctext.org/zh>)을 이용하였으며, 여기서 제공하는 본문 내 검색기능을 사용해 “酒”로 검색함으로써 酒와 관련된 원문을 조사하였다^{주5)}.

원문에 대한 번역은 《黃帝內經》의 경우 홍(1985)[1]의 번역을 이용하였으며, 《景岳全書》는 안(2011)[4]의 번역을 이용하였다.

2. 분류 방법

조사된 《黃帝內經》과 《景岳全書》의 원문은 다음과 같은 7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분류 분석하였다. 분류 기준 중 (1), (2), (3), (4) 번은 酒의 순기능을, (5), (6) 번은 酒의 역기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酒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언급한 비율을 살펴보았다.

1) 분류 기준

- (1) 治癒 (Treatment) : 질병의 치료 의미로 쓰인 경우.
- (2) 修治 (D.P.; Drug-Processing) : 酒浸, 酒洗 등 약재의 수치를 위해 사용한 경우.
- (3) 服用法 (T.M.; Taking Method) : 복용법에서 酒와 함께 복용할 때 사용된 경우.
- (4) 處方名 (P.N.; Prescription Name) : 약의 처방명에 사용된 경우.
- (5) 병의 원인 (Cause of Disease) : 병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 (6) 병의 이름 (Disease Name) : 병의 이름에 사용된 경우.
- (7) 기타

2) 조사된 원문 처리 방법

《黃帝內經》의 경우 조사된 원문의 수가 많지 않아 원문과 설명을 참조할 수 있게 같이 나열하였으나 《景岳全書》의 경우 조사된 원문이 천 건이 넘어 일일이 나열하지 못하고 권별로 분류 기준에 따른 그 횟수만 기록하였다.

주 5) 《黃帝內經》의 웹주소는 <https://ctext.org/huangdi-neijing/zh>, 《景岳全書》의 웹주소는 <https://ctext.org/wiki.pl?if=gb&res=223117> 이다.

III. 結果

1. 《黃帝內經》

《黃帝內經》에서는 총 12편에서 23회의 酒라는 글자가 발견되었다. 그 중 素問에서 6편 8회가 나오고, 靈樞에서는 6편 15회가 나온다. 이중 순기능은 4편 9회, 역기능은 6편 10회. 기타 2편 4회로 순기능 39.13%와 역기능 43.48%의 비율로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 治癒 (Treatment)

治癒의 의미로 쓰인 경우는 素問 1편 1회, 靈樞 2편 7회로 총 3편 8회였다. 원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玉版論要」 - 素問, 1회.

其色見淺者, 湯液主治, 十日已; 其見深者, 必齊主治, 二十一日已; 其見大深者, 醪酒主治, 百日已; 色夭面脫, 不治, 百日盡已, 脈短氣絕死, 病溫虛甚死.

【설명】 : 병이 심한 사람은 醪酒로써 치료하는데 100일이면 낫는다. 藥酒로 치료함을 이야기한다.

(2) 「壽夭剛柔」 - 靈樞, 4회

黃帝曰 藥熨奈何?

伯高答曰 用淳酒二十斤, 蜀椒一升, 乾薑一斤, 桂心一斤, 凡四種, 皆咬咀, 漬酒中, 用綿絮一斤, 細白布四丈, 并內酒中. 置酒馬矢燻中, 蓋封塗, 勿使泄, 五日五夜, 出布綿絮, 曝乾之, 乾復漬, 以盡其汁. 每漬必, 晬其日, 乃出乾. 乾, 并用滓與綿絮, 複布爲複巾, 長六七尺, 爲六七巾, 則用之生桑炭灸中, 以慰寒痺所刺之處, 令熱入至于病所, 寒復灸中以慰之, 三十遍而止. 汗出, 以巾拭身, 亦三十遍止. 起步內中, 無見風. 每刺必熨, 如此病已矣, 此所謂內熱也.

【설명】 : 藥熨法을 행할 때에 찻질팩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다.

(3) 「經筋」 - 靈樞, 3회

治之以馬膏，膏其急者，以白酒和桂，以塗其緩者，以桑鉤鉤之，即以生桑灰，置之坎中，高下以坐等。以膏熨急頰，且飲美酒，噉美炙肉，不飲酒者，自強也，爲之三拊而已。治在燔鍼刺，以知爲數，以痛爲輸，名曰季春痺也。

【설명】 : 술에 약재를 타서 바른다는 치료법. 또한 좋은 술을 마시면 치료가 된다는 치료목적의 酒를 의미한다.

2) 修治 (Drug-Processing)

내경에서는 약재 수지에 사용되는 酒를 찾아볼 수 없었다.

3) 服用法 (Taking Method)

복용법의 의미로 쓰인 경우는 素問 1편 1회였다.

(1) 「繆刺論」 - 素問, 1회

不已，以竹管吹其兩耳，鬢其左角之髮，方一寸，燔治，飲以美酒一杯，不能飲者灌之，立已。

【설명】 : 약을 복용할 때 술로 복용한다. 약의 힘을 도와 行血氣하는 역할의 酒를 말한다.

4) 處方名 (Prescription Name)

《黃帝內經》에서는 처방명에 들어간 酒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黃帝內經》이라는 책이 처방명이 수록된 임상서가 아닌 이론서이고, 처방명이 많이 나와 있지 않은 책인 영향으로 보인다.

5) 병의 원인 (Cause of Disease)

내경에서는 처방명에 들어간 酒는 素問 3편 5회, 靈樞 2편 4회, 衝5편 9회였다.

(1) 「上古天真論」 - 素問, 1회

今時之人不然也，以酒爲漿，以妄爲常，醉以入房，以欲竭其精，以耗散其真，不知持滿，不時御神，務快其心，逆於生樂，起居無節，故半百而衰也

【설명】 : 옛날 사람들과 지금 사람들의 양생이 달랐음을 설명한다. 술을 물 마시듯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入房을 하니 精氣와 眞氣가 소모되고 흩어진다.

(2) 「風論」 - 素問, 1회.

風中五藏六府之俞，亦爲藏府之風，各入其門戶所中，則爲偏風。風氣循風府而上，則爲腦風；風入係頭，則爲目風眼寒；**飲酒中風，則爲漏風**；入房汗出中風，則爲內風；新沐中風，則爲首風；久風入中，則爲腸風飧泄；外在腠理，則爲泄風。

【설명】：漏風(中風)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酒를 의미한다. 술을 마시고 風을 맞으면 漏風이 된다.

(3) 「厥論」 - 素問, 3회.

帝曰 熱厥何如而然也？

岐伯曰 **酒入於胃**，則絡脈滿而經脈虛。脾主爲胃行其津液者也，陰氣虛則陽氣入，陽氣入則胃不和，胃不和則精氣竭，精氣竭則不營其四支也。此人必數醉若飽以入房，氣聚於脾中不得散，**酒氣與穀氣相薄**，熱盛於中，故熱徧於身，內熱而溺赤也。**夫酒氣盛而慄悍**，腎氣有衰，陽氣獨勝，故手足爲之熱也。

【설명】：熱厥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酒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한 술이 胃에 들어오면 熱厥이 발생함을 이야기한다.

(4) 「經脈」 - 靈樞, 1회.

飲酒者，衛氣先行皮膚，先充絡脈，絡脈先盛，故衛氣已平，營氣乃滿，而經脈大盛。脈之卒然動者，皆邪氣居之，留于本末；不動則熱，不堅則陷且空，不與衆同，是以知其何脈之動也。

【설명】：脈이 돌연 변하는 것은 酒의 영향이다. 酒氣는 邪氣를 뜻한다.

(5) 「論勇」 - 靈樞, 3회

黃帝曰 **怯士之得酒**，怒不避勇士者，何藏使然？

少俞曰 **酒者，水穀之精**，熟穀之液也，其氣慄悍。其入于胃中，則胃脹，氣上逆，滿於中，肝浮膽橫，當是之時，固比于勇士，氣衰則悔。與勇士同類，不知避之，**名曰酒悖也**。

【설명】：술이 영향을 미치는 장부, 술을 마시면 酒悖가 생기며 용감해지는 기전을 장부로 설명하였다.

6) 병의 이름 (Disease Name)

병의 이름으로 쓰인 경우는 素問 1편 1회였다.

- (1) 「病能論」 - 素問, 1회

帝曰 善. 有病身熱解墮, 汗出如浴, 惡風少氣, 此爲何病?
 岐伯曰 **病名曰酒風.**
 帝曰 治之奈何?
 岐伯曰 以澤瀉·朮各十分, 麩銜五分, 合, 以三指撮, 爲後飯.

【설명】: 병명을 일컬어 酒風이라고 하였다.

7) 기타

기타 의미로 쓰인 경우는 靈樞 2편 4회였다.

- (1) 「營衛生會」 - 靈樞, 3회.

黃帝曰 **人飲酒, 酒亦入胃,** 穀未熟而小便獨先下, 何也?
 岐伯答曰 **酒者, 熟穀之液也,** 其氣悍以清, 故後穀而入, 先穀而液出焉.
 黃帝曰 善.

【설명】: 술의 정의를 설명하는데 술은 곡식을 발효시켜 만든 액체이다라고 얘기하며, 술의 성질은 悍以清 즉 사납고도 맑다고 하였다.

- (2) 「玉版」 - 靈樞, 1회.

黃帝曰 余聞之, 則爲不仁, 然願聞其道, 弗行於人.
 岐伯曰 是明道也, 其必然也, 其如刀劍之可以殺人, **如飲酒使人醉也,** 雖勿診, 猶可知矣.

【설명】: 술을 마시면 취하는 것처럼 확실하고 필연적인 것이다. 확실한 것에 대한 비유로서 사용하였다.

이상을 표로써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Table 1. Num. of Times "酒" inserted in "黃帝內經" per the Classification Criteria

Divide	Chapter	Treatment	D.P.	T.M.	P.N.	Cause	Disease	Etc.	Total
素問	卷01. 上古天真論					1			1
	卷15. 玉版論要	1							1
	卷42. 風論					1			1
	卷45. 厥論					3			3
	卷46. 病能論						1		1
	卷63. 繆刺論				1				1
靈樞	卷06. 壽夭剛柔	4							4
	卷10. 經脈					1			1
	卷13. 經筋	3							3
	卷18. 營衛生會							3	3
	卷50. 論勇					3			3
	卷60. 玉版							1	1
Total		8	0	1	0	9	1	4	23
		34.78%	0.00%	4.35%	0.00%	39.13%	4.35%	17.39%	100.00%

D.P. : Drug-Processing, T.M. : Taking Method, P.N. : Prescription Name

2. 《景岳全書》

《景岳全書》에서는 64권 중 57권에서 총 1,487회의 酒라는 글자가 조사되었다. 이를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해본 결과 주가 가장 많이 포함된 권은 64권(180회)이다. 또 修治에 사용된 경우가 517회(34.7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복용법으로 사용된 경우가 510회(34.30%)였다. 이를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순기능은 1,140(76.66%)회, 역기능 327(21.99%)회로 나타났다.

Table 2. Num. of Times "酒" inserted in "景岳全書" per the Classification Criteria

Chapter	Treatment	D.P.	T.M.	P.N.	Cause	Disease	Etc.	Total
卷一					8			8
卷二					4			4
卷三								0
卷四								0
卷五					1			1
卷六								0
卷七					1		1	2
卷八								0
卷九								0
卷十					2	2		4
卷十一	1		1	1	11	6		20
卷十二	1	1		4	2	1		9
卷十三		2						2
卷十四	2	1	1	2	10		2	18
卷十五	1	2			1			4
卷十六					15		3	18
卷十七		2			12			14
卷十八					3			3
卷十九		2			2			4

卷二十					3			3
卷二十一		2			9	1	7	19
卷二十二					23	1		24
卷二十三					1			1
卷二十四		2		1	18	1		22
卷二十五	1	2	3		2			8
卷二十六				1	4			5
卷二十七	2	1	1		6	2		12
卷二十八					6			6
卷二十九					4			4
卷三十	2	2		1	8			13
卷三十一					9	11		20
卷三十二			2	9	6			17
卷三十三		1		1	5			7
卷三十四	1	3		2	2			8
卷三十五					8			8
卷三十六					6	1	3	10
卷三十七					1			1
卷三十八			3					3
卷三十九			9		7			16
卷四十								0
卷四十一		1			2			3
卷四十二		1	1	4				6
卷四十三					1			1
卷四十四	6	3	1	5	1			16
卷四十五		1	2		3			6
卷四十六		5	3	13	4			25
卷四十七	6	7	2	3	13		1	32
卷四十八	2	12	22		5	11		52
卷四十九	3	10	14		3	12		42
卷五十	1							1
卷五十一	6	51	23		2		1	83
卷五十二								0
卷五十三		54	39	1	1		1	96
卷五十四		55	82	9	10	2		158
卷五十五		10	7		4	2		23
卷五十六		7	12					19
卷五十七		43	18	1	2	2		66
卷五十八		15	35	1	2			53
卷五十九		23	37		2			62
卷六十	1	45	28		3	5		82
卷六十一		51	49	1	2			103
卷六十二		16	2		1			19
卷六十三		20	17	3	1			41
卷六十四	1	64	96	13	5		1	180
Total	37	517	510	76	267	60	20	1487
	2.49%	34.77%	34.30%	5.11%	17.96%	4.03%	1.34%	100.00%

D.P. : Drug-Processing, T.M. : Taking Method, P.N. : Prescription Name

IV. 考察

술의 기원에 있어 여러 설 중 하나를 《黃帝內經》을 들어 설명하는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바로 서유구의 《林園經濟志》의 《鼎俎志》에서 밝힌 내용이다. 정약용과 함께 조선후기 대표적인 실학자 중에 한 사람인 서유구는 선인들이 앞서 말한 술의 기원이 틀렸음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서유구의 반박 의도는 모든 음식이 그러하듯 술의 기원 역시 특정시대, 특정인에 의해 시작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서유구가 밝힌 술의 기원에 대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아래와 같다. 이 내용은 풍석문화재단 음식연구소의 「조선셰프 서유구의 술 이야기」에서[5] 번역한 내용을 전문 그대로 인용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술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는 설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이 다섯 가지는 모두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주6)}.

하나 : ‘의적(처음으로 술을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하나라 사람)이 처음으로 술을 만들었다.’고 하니 우임금과 동시대의 일이다. 의적이라는 이름은 경에서는 보이지 않고 《세본》에서만 나온다. 그러나 《세본》은 믿을 만한 책이 아니다^{주7)}.

하나라는 중국최초의 왕조로 우왕이 만든 나라인데 《사기》에 의하면 우왕은 손으로부터 천자의 자리를 물려 받았다. 천 잔의 술을 마셨다는 요임금이 우왕보다 앞선 인물이니 하나라 사람인 의적이 술을 만들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한 《세본》은 《한서예문지》에 실린 글인데 위서도 많으므로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책은 아니다.

하나 : ‘요임금은 천 잔의 술을 마셨다.’고 하니 술은 요임금 때 만들어졌다. ‘요임금은 천 잔의 술을 마셨다.’고 하는 말은 본래 《공총자》에서 나왔는데 대개 향간에 떠도는 말이다^{주8)}.

선정을 베풀었던 요임금이 천 잔의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는 술은 이미 요임금 이전에 만들어졌고 요임금 때에는 술을 즐기는 시대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또한 《공총자》는 후세에 저자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요임금이 천 잔의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는 저자도 정확하지 않은 책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하나 : 《신농본초》에서는 술의 성질과 맛을 드러냈고 《황제내경》에서도 술이 병을 만든다고 말했으니 술은 의적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신농본초》가 비록 신농(영제)때부터 전해졌다고 하지만 가까운 시대의 것들도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모두가 신농 때의 책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황제내경》이 비록 삼분(전설 속 중국 최고의 서적으로 복희, 신농, 황제의 책)의 책이라고 하지만 그 문장을 살펴보면 이 책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은 ‘전국시대에서 진나라와 한나라 사이’임을 알 수 있다

주6) “世言酒之所自者有五。是五者，皆不足以考據也。”

주7) “一曰：儀狄始作酒，與禹同時。儀狄之名，不見於經，而獨出於《世本》。《世本》，非信書也。”

주8) “一曰：‘堯酒千種’，則酒作於堯。堯酒千種，其言本出《孔叢子》，蓋委巷之說也。”

주9)

《황제내경》 「상고천진론」에서는 술이 병을 만드는 원인이라고 황제의 질문에 대해 기백이 대답한다.

하나 : 하늘에 주성이 있으니 술이 만들어진 것은 천지와 함께 한다. 별 이름 중에서 환자, 분묘, 호시하고 같은 경우는 모두 태고에는 없던 것들이지만 이 별은 먼저 있었으니 주성도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다^{주10)}.

술은 천지가 만들어질 때 같이 만들어졌다고 술의 5가지 기원설 중에 가장 비중을 둔다.

하나 : ‘두강이 술을 만들었다.’ 두강에 대해서는 위무제(조조)가 지은 악부에 나오지만 두씨는 본래 류씨에서 나와 누대에 걸쳐서 상에 살다가 시위씨가 되었다. 주나라 무왕이 두나라에 분봉하여 두백에게 나라를 전했는데 선왕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자손들이 진나라로 도망하여 마침내 두를 씨로 삼은 자가 있게 되었고 어떤 강이라는 사람이 술을 잘 빚는 것으로 이름이 났다고 하여 술이 강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대개 지혜로운 자가 만들면 후세 사람들이 따라서 아무도 그만 둘 수가 없으니 그것이 누구에게서 비롯되었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옛 사람들은 먹고 마실때 반드시 고수레를 했고 이 때는 술을 앞세웠는데 누구를 위해서 고수레를 하는지는 말하지 않았으니 여기에서도 알 수 있다. 《두씨주보》^{주11)}.

천 잔의 술을 마셨다는 요임금 때에도 술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시대가 한참 뒤진 진나라 사람인 두강이 술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술의 기원설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아마도 두강은 술을 잘 빚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다.

결국 서유구가 술의 기원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술과 인간이 역사를 같이 했다.”는 점과 “신이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만들 때 희로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술도 같이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인간과 역사를 같이 한 술은 사람의 몸을 치료해주고 도움을 주는 순기능과 함께, 사람의 몸을 해치고 병의 원인이 되는 역기능이 함께 존재한다.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中藥大辭典의 “酒”항목에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언급이 보이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

주9) “一曰：《神農本草》著酒之性味，《黃帝內經》亦言酒之致病，則非始於儀狄矣。《本草》雖傳自炎帝，亦有近世之物附見者，未必皆炎帝之書也。《內經》雖三墳之書，然考其文章，知卒成是書者，六國秦漢知際也。”

주10) “一曰：天有酒星，酒之作，與天地竝。星名，如宦者，墳墓，弧矢，河鼓，皆太古所無，而先有是星，則酒星亦可類推矣。”

주11) “一曰：杜康作酒。至於杜康，見於魏武樂府，而杜氏本出劉，累在商，為豕韋氏。武王封之於杜，傳國至杜伯，為宣王所誅。子孫奔晉，遂有以杜為氏者，或者康，以善釀名乎，謂酒始於康，則非也。大抵智者作之，後世循之而莫能廢，亦安知其始於誰乎？古者食飲必祭先酒，亦未嘗言所祭者為誰，茲可見矣。《竇氏酒譜》”

陶弘景은 “큰 추위로 모든 것이 얼어붙을 때에도 오직 술만이 얼지 않는다. 이에 그 熱性이 모든 약 중에서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약사들은 반드시 그 성질에 맞게 유도하여야 한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몸이 손상되고 정신이 흐려지는 것은 그 독성을 설명해 준다.”라고^{주12)} 하였다.

王好古는 “술은 古人들이 보리 누룩과 함께 기장으로 빚을 때에도 이미 辛熱의 독이 있었다. 거기에 지금은 烏頭, 巴豆, 生薑, 桂枝 등속의 大毒大熱한 약까지 넣어 그 맛을 진하게 하고 그 辛熱의 기운을 더해 주니 어찌 신체의 조화를 파괴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로써 정신을 손상하고 榮衛를 말리며 腎精을 다 소모시켜 사람들을 요절하게 하는 것이다.”라고^{주13)} 하였다.

이상과 같이 여러 고전에서 술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黃帝內經》과 《景岳全書》는 어떠하였을까?

《黃帝內經》은 기원전 2세기 이전 중국 전통의학의 이론과 실재를 요약한 最初이며 最高의 의학서적이다. 인간의 정신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적절한 영양이 건강을 유지하는 원칙임을 말하였던 [5] 한의계의 기본 경전이다. 《景岳全書》는 명나라의 대표적인 종합의학서적으로 질병의 各門을 ‘論證’과 ‘論治’로 서술하였는데 이러한 태도는 辨證論治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64권 24집의 종합의서로서 한의학의 기초와 임상의학 전반을 포괄하고 있으며, 특히 新方八陳에 수록된 189首의 처방은 景岳의 이론에 의거하여 創方된 것으로 그의 학문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다용되고 있다[6].

본 연구자는 《黃帝內經》과 《景岳全書》의 술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기 위해 원문에 酒라는 단어가 얼마나 포함되어있나를 살펴보고 언급된 酒의 의미를 분석해서 이를 7가지 분류기준, 즉 治癒, 修治, 服用法, 處方名, 병의 원인, 병의 이름, 기타로 분류해 보았다. 이중 治癒, 修治, 服用法, 處方名은 순기능으로, 병의 원인, 병의 이름은 역기능으로 해석해서 이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黃帝內經》에서는 순기능 39.13%와 역기능 43.48%의 비율로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黃帝內經》은 酒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외에 기타 항목에 분류된 내용으로 술에 대한 정의를 곡식을 발효시켜 만든 것으로 설명한 것과 그 성질이 사납고도 맑다는 설명도 있었다.

그러나 《景岳全書》에서는 순기능 76.66%와 역기능 21.99%의 비율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景岳全書》의 48권부터 64권까지(本草正, 新方八陳, 古方八陳)는 임상서적의 특징인 본초와 처방

주12) “大寒凝海, 惟酒不冰, 明其熱性, 獨冠群物, 藥家多須以行其勢. 人飲之使體弊神昏, 是其有毒故也.”

주13) “酒, 古人惟以麥造麴釀黍, 已爲辛熱有毒, 況今之醞者加以烏頭 巴豆 薑 桂之類大毒大熱之藥, 以增其氣味, 益加辛熱之餘烈, 豈不傷衝和, 損精神, 涸榮衛, 竭天癸, 夭人壽耶.”

이 많이 나오면서 약재의 수치방법과 복용법이 많이 기록되었기에 위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이에 1권부터 47권까지의 내용과 48권부터 64권까지의 내용을 나누어서 비교해 보았는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Num. of Times "酒" Inserted in "景岳全書" as Compared according to Chapter

Chapter	Positive Function				Negative Function		Etc.	Total
	Treatment	D.P.	T.M.	P.N.	Cause	Disease		
1卷-47卷	23 5.65%	41 10.07%	29 7.13%	47 11.55%	224 55.04%	26 6.39%	17 4.18%	407 100.00%
Subtotal	140 34.40%				250 61.43%		17 4.18%	407 100.00%
48卷-64卷	14 1.30%	476 44.07%	481 44.54%	29 2.69%	43 3.98%	34 3.15%	3 0.28%	1,080 100.00%
Subtotal	1,000 92.59%				77 7.13%		3 0.28	1,080 100.00%
Total	1,140 76.66%				327 21.99%		20 4.46%	1,487 100.00%

위의 Table 3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본초와 처방편을 제외하고 47권까지의 내용만을 가지고 순기능과 역기능을 계산해 본다면 순기능은 34.40%와 역기능은 61.43%의 비율이 나타나 오히려 역기능에 대해서 더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景岳全書》에 나온 酒 중 기타 항목으로는 47권에 외과수술을 하기 위한 마취제로 술을 사용한다는 것과 64권의 술지계미를 치료약으로 사용한다는 부분 등이 다소 흥미로운 점이였다.

이상으로 酒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언급을 酒가 언급된 횟수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黃帝內經》은 고르게 언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景岳全書》는 역기능에 대한 언급이 더 강조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언급 횟수만 가지고서 어느 책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어느 책에서는 부정적이 부분이 더 강조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인 측면이 있다. 또한 순기능이 많이 언급되었다고 해서 저자의 의도가 음주를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지만 酒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의 언급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모두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현대의 학자들이 주로 발표하고 있는 연구들은 酒에 대한 역기능에 초점을 맞춰 연구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연구를 통해 한의학의 주요 고전인 《黃帝內經》과 《景岳全書》에서는 酒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의 양면성을 같이 논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고전에서 보이는 이러한 선현의 지혜를 살펴 술을 이용함에 있어 그 순기능과 역기능을 잘 알고 사용하며, 적절하게 조절하여 음용하는 것이 양생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후향 연구자는 좀 더 다양한 고전과 더불어 한의학 서적만이 아닌 종교, 철학 혹은 문학에 있어

서 酒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살펴보는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V. 結論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결론을 얻었다.

1. 《黃帝內經》은 술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의 언급이 비슷하였다.
2. 《景岳全書》는 술에 대한 순기능에 대한 언급이 많았으나 본초, 방제와 관련된 편(48권~64권)을 제외하면 역기능에 대한 언급이 더 많았다.
3. 고전에서 술에 대한 언급 횟수로 술의 순기능, 역기능에 대한 강조를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나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된 시각이 아닌 양면성을 모두 살펴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술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잘 알고 사용하며, 적절하게 조절하여 응용하는 것이 양생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VI. 參考文獻

- 1) 홍원식.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326.
- 2) 김창민. (完譯)中藥大辭典. 서울: 鼎談; 1999.
- 3) 윤상득. 『동의보감』의 술(酒)에 관한 고찰 [석사]. 서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2:86.
- 4) 장개빈, 안영민. (懸吐註釋)景岳全書. 서울: 한미의학; 2011:1142.
- 5) 풍석문화재단음식연구소. 조선세프 서유구의 술 이야기. 서울: 풍석문화재단; 2019:348.
- 6) Ha K-T. Study on the influence of Jingyuequanshu(景岳全書) to medical books of late Chosen dynasty [Master's Thesis]. Seoul: Dongguk University; 2001:30.